**하야사키 해안**

하야사키 해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마바라반도 최남단의 해안을 따라 걷다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분화의 흔적과 분화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30만 년 전 해저 화산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마바라반도의 탄생입니다. 화산 성장의 각 단계에서는 다른 물질이 생성되었습니다. 먼저 화산이 해수면을 나누자 초기 분화 용암이 바닷물과 섞여 대량의 화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황토가 되었습니다. 또, 화산이 성장하면서 용암류가 공기 중에서 식어 적갈색 현무암이 형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젠 화산군이 되는 새로운 화산의 대분화로 이어져 시마바라반도가 탄생했습니다.

반도 남쪽에는 하야사키 해협이 있고, 해협 중앙에는 아마쿠사 제도의 섬들이 멀리 보입니다. 이곳은 해협이 좁고 깊기 때문에 어업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상에서는 철분이 풍부한 화산성 토양이 펼쳐져 양파나 감자 등 뿌리채소류의 생육을 촉진했고, 화산암을 잘게 부수면 돌담이나 계단식 논농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또 규슈 자연 보도와 한국 제주도발 트레킹 ‘올레’ 자매판, 규슈 올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